Apple Shooting

(막2:1-5)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Apple Shooting>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Apple Shooting'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죠, '사과 맞추기'입니다.
빌헬름 텔의 전설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식민지화하고 있을 때, 오스트리아의 총독이 스위스의 중심 광장에다 자기의 모자를 걸어놓고 모든 스위스 식민지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모자에 절을 하도록 강요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절을 하고 있을 때, 사냥꾼인 빌헬름 텔이 이 총독의 명을 거부하게 되면서 총독 앞으로 붙잡혀 옵니다.
그가 활을 잘 쏜다는 말을 들은 이 총독이 빌헬름 텔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들을 세워놓고 그 위에 사과를 얹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사과에 명중을 시키도록 합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내게 되면서 빌헬름 텔이 죽음을 면하고 유배를 갑니다.
나중에는 그 활로 그 총독을 죽이면서 스위스의 독립을 이끈다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빌헬름 텔의 전설을 쉴러가 희곡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마치 진짜 이야기처럼 되어 스위스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는 했지만 이것은 전설을 희곡화한 것이지요.

우리 신앙은 바로 이렇게 '빌헬름 텔의 사과 맞추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사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함 받은 이 죄라는 단어의 뜻이 과녁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정의하자면,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화살을 명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중 못 시키면 명중 못한 대로 불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빌헬름 텔이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과를 명중시켜야 살기 때문에, 사과에다 화살을 꽂으려고 사과를 향해 활을 당깁니다.
그러나 사과와 아들의 머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한 치의 오차라도 생길 경우에는 화살이 아들의 머리에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빗나가도 괜찮다고 한다면 다른 곳에다 쏘면 될 것입니다만 사과에 명중을 시키려고 겨냥을 하기 때문에 사과에 집중해서 쏘다가 아들의 머리에 화살이 박히기가 십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화살이 예수님을 향하여 적중하지 않을 때는 그냥 빗나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인가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신앙이 갖고 있는,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갑니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화살이 적중하지 못할 때 그때 반드시 아들과 같이 소중한 것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시는 복음사역을 하실 때, 1장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이 계속해서 엇갈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상태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갖고 오신 복음에 대해서 어긋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게 바로 천벌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늘을 빼앗기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천벌을 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천국을 갖고 오신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올바로 적중해서 수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야기의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당연히 중풍병의 치유가 이 본문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12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쭉 따라가다 보면 본문의 내용이 죄 사함의 내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 바로 과녁을 벗어나는 것인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상에다 뉘여서 그 들것을 들고 온 네 명의 친구들의 마음상태가 과녁을 적중했다고 하는 얘깁니다.
죄 사함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게 된 것은 이들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과녁을 적중했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의 마음의 화살이 무엇에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뜬금없는 죄 사함을 선언하게 하셨을까요?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선언하시게 되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을 '크레도'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크레도라는 라틴어의 뜻이 뭐냐 하면 심장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화살을 쏘았고 적중시켰다는 얘기예요.
적중하는 마음의 화살을 보고 죄가 사해짐을 선언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 장모의 집으로 다시 갔을 때 인근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도대체 사람이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군집한 상태에서 뒤늦게 중풍병자가 네 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서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도대체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을 뚫었다고 해요, 당시는 납작하게 진흙과 나뭇가지와 짚을 섞어서 만든 지붕이기 때문에 뚫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집의 벽 옆으로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 지붕

위에서 기도도 하고 쉬기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중풍병이 낫기는 나아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중풍병을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본다고 한다면 완전히 200% 본문을 오해하는 겁니다.
마가의 의도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맞지를 않습니다.
왜 맞지 않는가 하면,
'내가 지금 중풍병이 나아야 되겠다, 너무 낫고 싶은 마음이 강렬해서 예수님께로 나가기 위한 이 결심이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이런 무례와 실례를 무릅쓰고, 내려와서 결국은 얻었다.'
이것을 '믿음이다', 그리고 중풍병을 낫기 위한 결심을 '죄 사함의 믿음'이라고 본다, 이건 이단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정통한 주석책에서 이런 글을 읽는다면 그 책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은 이단이 할 소리를 하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는 얘기에요.
기독교에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보세요!
자, 중풍병자가 왔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하면 웅성거림이 있고 사람의 환호와 탄성으로 시끌벅적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조용했어요.
왜 그런지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도를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1장의 분위기와는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장면은 이제까지 1장에서 귀신 쫓아내고 각색 병을 고치시고 하던 이 모습과 너무나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만약에 병을 고치는 것이 마음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화살은 지금 자기 몸이 온전하게 되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에 적중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겠지요? 그 결심으로 온 것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붕을 뚫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그냥 그 시간이 끝이 나기를 기다리면 되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받으러 왔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뜬금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끊지 못하고 말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지붕까지 깨고 들어갈 필요가 없고, 중풍병 앓은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닌데 오늘 저녁 해 지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왜 남의 지붕까지 뚫고 내려갑니까?

그러므로 병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고 내려갔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계신다고 그러면 자기 순번이 되면 고쳐주실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당도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게 되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설사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해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음 사람 고쳐야 되니 비키라고 하고, 자리를 옮기셨을 겁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 지붕 뚫고 내려가면 순번대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 현장에서 죄 사함이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만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주어집니다.
병 고치기 위한 결심이 믿음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다 이 사람만큼 병고치고 싶은 열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지붕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다급한 마음이 생긴 겁니까?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지금.
지금은 병 고치는 타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인데 왜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까?

병을 고치러 왔을지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화살이 날아가는 과녁이 바뀐 거예요.
자, 도를 말씀하신다고 마가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행동과 맞물려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다급한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도를 듣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을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음의 과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대형교회, 아니면 작은 교회라도 1부, 2부, 3부 예배를 하면, 1부 예배 못 들어간 것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3부 예배 가면 되고, 자리가 차서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됐으면 또 다른 장소에서 모니터로 방송을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이들이 지붕을 뚫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입을 열어 도를 말씀하고 계실 때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 말씀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병 고치는 예수님이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지붕이 칼로 오이를 잘라내듯이 단박에 뚫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스럭 부스럭하고 긁어내리다 보면 예수님이 계신 집안사람들에게 흙이 떨어지고 먼지가 막 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중단하셨을 것이고, 집주인은 화가 나서 '어떤 놈이 남의 지붕을 뜯느냐?'고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저지시키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위에서 들것이 쓱 내려오는데, 다짜고짜 '네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중풍병이 나았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는 지금 병 고침을 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바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마음의 화살'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그들의 마음의 화살이 당신에게 와서 꽂히는 것을 느끼신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죄 사함의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준비해서 갖고 오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마음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내 인생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 있습니다, 빌헬름 텔 아들의 머리 위에 사과가 올라가 있듯이.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발생하는 것을 관심을 갖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갖고 오셨는가, 저분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나한테서 발생한 문제에 예수님을 갖다 맞춥니다.
나한테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녁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조준관을 사용합니다.
전부 관심이 내 인생에서 발생한 문제, 내 마음에서 발생한 소원, 내 마음에서 발생한 내 인생의 꿈,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이 과녁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 예수님에게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중풍을 고치려 왔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가 궁금했던 겁니다, 내 인생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해결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나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잊어버렸습니다,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적중했다, 하늘나라를 가져왔고 복음을 이루고 있는 나 자신에게 너

희들의 마음이 적중해서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희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이들은 중풍병을 잊어버렸습니다.
나 자신에게 발생되는 문제를 잊어버렸습니다.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도 예수님의 도를 듣고 싶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고 죄 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중풍병 걸린 상태를 잊어버렸는데 주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나를 잊어버립니다, 왜?
예수님께 관심하기 위해서.
나한테서 발생한 문제를 표적 삼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내 문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완성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노라’
태초에 말씀으로 같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 말씀이 완성된 사건이 십자가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 문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로, 말씀이 완성된 그 현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때 잊어버린 내 인생을 주님께서 챙기십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향하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의 화살을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해 쏠 때 내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뜻을 죽이는 거예요.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의 관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화살은 우리 생애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잊어버리고 그 과녁을 향해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내 인생의 문제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합니까?

거기에 맞추지 마세요, 거기다 꿰맞추지 말고 내 인생의 문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관심사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관심사에 대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갖고 오신 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과녁 삼아 마음이 날아갈 때에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다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지붕을 뚫고 내려갈 때에 중풍병자와 네 친구의 마음의 화살을 우리 마음의 화살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문제를 모두 잊고 예수님에게로만 향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내가 잊어버린 내 인생은 예수님께 맡겨지고, 나는 예수님께서 갖고 오신 죄사함과 천국을 진짜로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